

濟州島俗談研究史

高 在 奂*

< 목 차 >

- | | |
|--------|------|
| I. 개 | 관 |
| II. 논 | 저 |
| III. 자 | 료 |
| IV. 요약 | · 정리 |

I. 개 관

제주도에 관한 향토학(제주학)의 연구가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것도 있지만, 속담인 경우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하긴 1930년대 일제치하이지만 현지 답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속담에 대한 논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사엽의 《속담론》-대건출판사, 1953.-의 '자서'와 '추기'에 그 실상을 엿볼 수 있고, 특히 '다도해 속담의 지방적 특색(pp. 141-151.)' 부분에 보면, 제주도 속담의 속성에 대해 언급돼 있다. 그것은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속담에 대한 논급의 효시이다. 그 후 195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어서야 제주도에 통용되고 있는 속담자료를 모아 엮은 제주도의 속담집이 나왔고, 학술논문에 해당하는 글은 1970년대 말까지 3편이 발표됐을 뿐이다.

실제 제주도 속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시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 1990년 말 현재 고재환이 직접 채록해서 수합선별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진 분석과 고찰

*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에서 비롯된다. 즉 제주도속담에 대한 '형성배경·형태·표현·소재·주제·성향'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 속담의 골격과 정체성을 개관해 볼 수 있는 각론적 논저의 등장이 그것인데, 이는 제주도 속담학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된다. 거기에다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말에 그간 수집된 속담을 선별하여 엮은 자료집인 《제주도속담사전》의 출간은 제주도 속담연구를 위한 자료수비의 결실로 꼽을 수 있다.

그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제주도 속담에 관한 자료와 연구결과는 논문과 저서를 합친 '논저' 분야와 속담집과 사전을 합친 '자료' 분야로 양분할 수 있는데, 1999년 말 현재 드러난 간행물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II. 논 저

▣ 김사엽 : 《속담론》 - 대건출판사, 1953. pp. 142~150.-

남해안 '다도리 속담의 지방적 특색'을 거론하는 '제주도' 부분에 보면, 제주도 지세의 특성과 풍습·경물을 개관한 다음, 속담을 통해 본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속담의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어업생활에 대한 속담 9편을 제시하고, ② 생활환경에 의한 여인들의 정조관과 개방적이고 노골적인 성격과 그에 관계된 10편의 속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부간과 동서간의 갈등상을 드러낸 4편의 속담을 한데 묶은 다음, 육지부의 여자와 다른 남성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단편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다. ③ 기존의 속담들을 변형시켜 제주도적인 향토성이 짙은 속담으로 꾸며내는 묘미의 재질이 돋보이는 점을, 41편의 속담을 열거해서 강조하고 있다. 즉, "普通諺을 假借하여 所謂 換骨奪胎의 妙를 다한 鄉諺의 많이 보이는데, 地方色 濃厚함과 同時에 이 가운데는 一層 切實 適確한 妙諺 佳諺이 더욱 많다."는 논급과 "對句의 妙는 內地 것보다 더 適切하여 語句의 諧調 疊語의 效果는 形態上으로 完全하고 優美함이 있다."가 그것이다. ④ 결론적으로 육지부의 속담은 중국의 고사·속어·속담이 혼합돼서 고유한 우리의 속담을 가려낼 수가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볼 때, 제주도의 속담은 유

교문화의 영향을 덜 받아서인지 고상한 것보다 저속한 내용의 것이 많지만, 솔직하고 해학과 기지가 넘친다고 28편을 제시하고 끝을 맺고 있다. 제시돼 있는 속담은 모두 103여 편이다.

여기서 문제는 제주속담으로 제시된 것들이 전부가 제주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제주도에서 채록되었기 때문에 육지부에도 두루 통용되는 것인데도 제주도의 속담으로 다뤄 버린 선별상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속담학의 논저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제주도 속담에 대한 최초의 논급이라는데 주목을 끈다.

▣ 현용준 : 제주도 속담의 특성 - <향림> 창간호, 제주상업고등학교, 1959. pp. 54~63. -

이 논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시 학생들을 통해 수집한 700여 편을 자료로 해서 씌어진 것인데, 실제 논문에 제시된 속담은 180여편이다. 비록 전문학술지가 아닌, 일개 고등학교에서 발간한 교지에 실린 가벼운 소론이지만, 제주도 출신으로서 속담에 대한 나름의 견해와 제주도 속담을 대상으로 그 특성의 일면을 밝힌 최초의 글이다. 그 핵심체제는 '소재면의 특성'·'형식면의 특성'·'내용면의 특성' 등 세 부분으로 돼 있다.

내용의 골격을 보면, '소재면의 특성'으로 ① 어업관계의 소재가 많다는 것. ② 농업관계의 소재가 많다는 것. ③ 축산관계 소재가 많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해당 속담을 열거해 놓고 있다. '형식면의 특성'으로는 짧은 형태의 대구와 운율이 정연하고 비유와 묘사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특히 민요와 깊은 연관이 있어, 민요의 구절이 속담화 현상을 강조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속담을 제시하고 있다. 또 '내용면의 특성'으로 집단의 속성을 반영한 ① 순박성과 선량성 ② 근검성 과 실천적 자주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부연해서 유교문화의 침식이 덜된 환경에서 제주도 여자의 강한 활동성에 대한 언급은 앞서 제시한 김사엽의 <속담론>에서 제주도 여자의 기질에 대한 언급과 일치한다.

▣ 김영돈 : 속담과 민요의 교류 - <제주도> 통권27호, 제주도, 1966. pp. 87~ 100. -

이 논문은 제주도의 속담과 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류 양상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다룬 것이다. 그 자료는 필자 자신이 채록해 엮은 <제주도 민요연구상>-일조가. 1965.- 에 수록된 노랫말 1403편 중 27편에 나타나는 속담 30여편

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민요에 끼여들고 있는 속담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구비문예로서 언어유산인 속담의 정체에 대해 논급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 주요 골격은 민중의 공감대 형성에서 오는 다양한 활용과 유용성으로 인해 춘향전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민요에 나타나는 속담에 대한 언급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속담과 민요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근거를, ① 형태의 간명성, ② 은유의 심중성, ③ 교육적 교훈성을 들고 있다. 그 결과 민요가 갖는 민중의 공통적 서정성과 향토적 주관성이 부지불식간에 속담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속담은 그 담긴 의미가 불문법적인 권위와 인상이 강할 뿐 아니라, 해학과 위트도 뛰어나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끝맺음에서는 민요와 속담의 선후 문제를 짚막하게 언급했는데, 어느 쪽이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돼 있다.

▣ 김영돈 ; 민요와 타구비문학과와의 교류 - <논문집> 제10집, 제주대학, 1978. pp. 23~ 54. -

이 논문은 필자가 <제주도>-통권27호-에 발표된 '속담과 민요의 교류'를 보완 확대시킨 것인데, 제주도민요 38편과 속담 60여편을 중심으로 그들의 상호교류의 실태를 살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어떤 형태로 교류되고 있으며, 어떤 제재가 대상을 이루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속담이 민요에 교류되는 형태를, ① 속담이 그대로 민요 한 편으로 불리어지는 경우, ② 한 편 또는 두 편 이상이 민요의 일부분으로 끼어드는 경우, ③ 속담이 지니고 있는 뜻이 민요 속에 용해되면서 원의는 같지만 분열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피고 있다. 제재상의 교류의 실상은 그 제재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서, 자연·인사·가정·시집살이·의식·양반(관리 포함)·생업 등의 순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실제 민요의 가사와 속담을 대비시켜 열거해 놓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속담의 특성(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81.)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으로서 1978년에 직접 채록한 800여편을 <속담사전>-이기문, 일조각, 1980-에 대비시켜 제주도의 속담으로 선별한 296편을 자료로 해서 그 특성을 추출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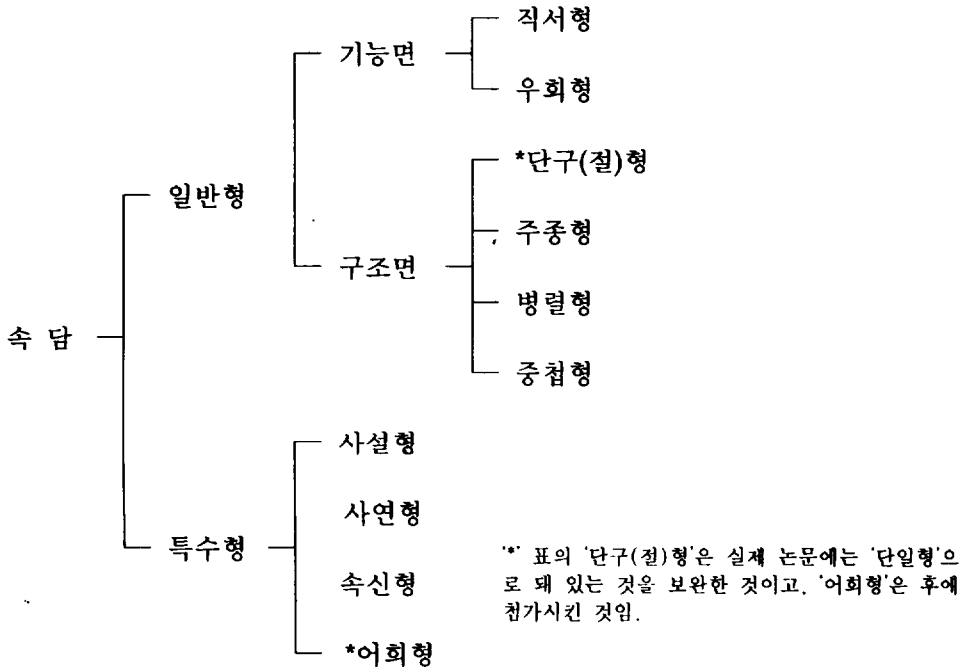
그 주된 내용은 제주도속담의 ① 형성배경, ② 형태의 특성, ③ 생업상의 특성, ④ 소재의 특성, ⑤ 주제의 특성 등 다섯 가지 부분으로 돼 있다. 이 논문의 골격은 훗날 박사학위논문의 기저를 이룬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단행본으로 발간된 박사학위논문을 주축으로 한 《제주도속담연구》-집문당, 1993-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특기할 점은 제주도의 구비전승물 중 설화류를 비롯한 민요와 무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물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그 성과가 나름대로 결실을 맺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속담부분만은 단편적이고 어느 한정된 일개부분에 대한 논급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 논문은 제주도 속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의 여성속담 - <국어국문학> 제86호, 국어국문학회, 1981. pp. 254~276. -

이 논문은 제주도의 여성속담 61편을 자료로 해서 그 실상을 살핀 것이다. 그 내용은 ①형태면의 辭說性과 事緣性 ② 내용구성의 배경인 장소 ③ 등장인물의 신분을 살핀 다음 ④ 내용별로 세분해서 논급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한국여성속담은 봉건적인 사고관에 의해 여자를 경멸하는 남존여비가 절대적인 것으로 단정해 버린 선학들의 여자비하의 학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여성속담도 한국의 속담인 이상, 제주도의 여성속담에는 여자의 자존적 위상을 드러내는 것들이 적잖게 통용되고 있어, 한국의 여성속담에 대한 기존 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속담의 형태 - <논문집> 제15집, 제주교육학, 1985. pp. 15~ 37. -

이 논문은 기존의 한국속담에 대한 형태분류를 검토하고 제주도 속담의 형태를 개괄할 수 있도록 530편을 표본자료로 해서 분류체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 내용의 골격은 상위형으로 '일반형'과 '특수형'을 설정한 다음, '일반형'과 '특수형' 별로 그에 해당하는 하위형을 설정해서 분류했다. 즉 '일반형'은 의미표출의 표현기능과 외적인 통사구조의 하위형으로 분류되고, '특수형'은 형태상 장형의 사설이거나 향토적 특성과 사연이 담긴 토속적인 것을 하위형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속담의 표현 - 《논문집》 제16집, 제주교육학, 1986. pp. 61~ 86. -

이 논문은 제주도 속담으로 선별된 550편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기교인 수사법, 울조와 연계된 울격, 웃음과 재치의 요소인 골계 등을 중심으로 표현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수사적인 표현에서는 경구법, 은유법, 대조법, 대구법, 과장법, 직유법, 설의법, 역설법, 점층법 등의 순으로 드러나 있다. 울격면에서는 4음보, 2음보, 3음보, 5음보, 6음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수율로는 5·5 조, 4·4조, 7·5조, 6·6조, 4·5조, 3·4조, 4·3조, 5·4조, 7·7조, 3·5조, 4·6조, 8·5조, 5·6조 등의 순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골계적인 면에서는 풍자, 해학, 위트, 아이러니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속담의 소재와 직능 - 《도남학보》 제9집, 도남학회, 1986. pp. 22~44. -

이 논문은 제주도 속담으로 선별한 550편을 자료로 해서 그 속담에 반영된 소재

를 분석하고 그들 속담의 지닌 직능에 대해 살핀 것이다. 그 내용은 소재부분에서 인물에 관한 소재 400여 개와 생물인 동식물에 관한 소재 195여 개를 비롯해서 의식주에 관한 소재 265여 개를 표로 나타내고 분석한 다음, 《한국민속 대관 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의 '속담'부분에 게재된 한국속 담의 소재와 비교하고 있다. 직능부분은 생업을 주축으로 한 노동, 농사, 잠수, 어로, 축산, 수렵, 행사, 공부, 공직 등 생계활동과 밀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속담연구 -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87. -

이 논문은 필자가 직접 채록한 550편의 자료를 선별해서 제주도 속담의 정체를 밝히고 그 실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제주도 속담학의 시원을 마련한 것이다. 그 내용의 골격은 ① 속담의 속성과 형성배경 ② 속담의 형태 ③ 속담의 표현 ④ 속담의 소재와 직능 ⑤ 속담의 주제 ⑥ 속담의 성향 등으로 짜여져 있다.

그 중 ② ③ ④ ⑤는 이미 발표된 논문을 체계화한 것이고, ①과 ⑥에서는 속담의 지닌 개념적 특성과 그들 속담이 이뤄진 환경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제주도 속담에서 돋보이는 '언어의 특성', '요사(謠詞)와 교류', '여인의 자존성', '도민의 의식'을 밝힘으로써 제주도 속담의 정체를 개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속담의 주제 -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pp. 59~84. -

이 논문은 550편의 제주도 속담을 표본자료로 해서 주제의 양상을 살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학들에 의해 시도된 분류상을 검토하여 참고한 다음, 필자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제주도 속담의 주제를 분류해서 고찰한 것인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여러 부류의 속담을 포괄할 수 있는 세 가지 상위주제인 경세관(警世觀)·생계관(生計觀)·운명관(運命觀)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하위주제로 분류시켰다. 즉 경세관에 따른 교시, 언행, 인정, 수분, 생계관에 따른 실리, 근실, 검약, 고충, 자립, 강인, 고지(告知), 운명관에 따른 운수, 길흉, 인연, 내세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속담에는 현세적인 것일 뿐 내세가 반영된

속담은 없다고 한, 선학의 기존설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을 운명관의 '내세' 부분에서 속신과 연계시켜 내세관이 반영된 속담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생업속담 연구 - <논문집> 제19집, 제주교육대학, 1989. pp. 7~63.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에서 공모한 연구과제로서 제주도민의 생활상 중 생업상이 반영된 농축속담(農畜俗談)과 어잠속담(漁潛俗談) 211편을 자료로 해서 그들 생업속담의 형성과정과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그 내용의 골격을 살펴보면, ① 형성배경을 자연적인 측면의 열악성과 생업적 측면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활상을 밝힌 다음, 생업속담의 양상인 ② 농축 속담 ③ 어잠속담을 중심으로, 그들 생업속담별 '소재', '내용', '주제'를 살핍으로써 제주도민의 자활의지와 강인한 생태를 밝히고 있다. 특히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바다를 생계의 텃밭으로 알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도 잠수속담(潛嫂俗談)이야말로 한국의 여성속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제주도 여인의 검질기고 억척스런 삶의 표상으로 두고두고 특기할 만한 가치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해양속담 - <국어국문학논총 > 벽사이우성선생정년기념논총, 여강출판사, 1990. pp. 1126~1140. -

이 논문은 1989년 현재 채록된 제주도의 생업속담 211편 중 바다를 무대로 해서 형성된 제주도민의 해양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잠수속담과 어로속담 80여 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의 '제주도의 생업속담 연구'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연적 측면의 불우한 환경 여건에 대응하여 바다를 활용하는 제주도민의 슬기와 극근극기의 자립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해양속담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요체를 살펴보면, 그들 해양속담인 잠수속담과 어로속담은 잠수의 물질과 어부의 고기잡이 활동의 목적인 '채취'와 '어획', 잠수와 어부의 '생태', 잠수와 어부가 해양생활을 통해 터득한 바다의 변화에 의해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 등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여자들에 의한 물질과 관계된 잠수속담은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여성속담로서 괄목할 만한 독자성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 고재환 ; 제주도 속담의 시가적 속성 -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회갑기념논총,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pp. 147~168. -

이 논문은 제주도 속담이 갖고 있는 시가적인 성격임과 동시에 한국속담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학적 속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들 시가적 속성의 근거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내 세우고 있다.

그 다섯 가지인 즉, ① 그 시대를 살던 선이들의 생활상과 생활신조인 기층의식을 드러내는 '세대반영', ② 그 시대를 살던 선인들의 오욕칠정인 회로애락에 오욕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출시킨 '진솔성', ③ 그 시대를 살던 선인들의 생활훈인 교훈성과 불만에 대응하는 저항성을 담은 '주제의식', ④ 옛 시가들의 지닌 운치와 재치를 드러내는 수사법인 '표현기교', ⑤ 한국 시가의 기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운율구조가 밝혀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수율을 바탕으로 한 '운율구조' 등에 대해 논급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의 속담 - <제주도> 제3권, 제주도, 1992. pp. 1357~1377. -

이 논문은 1992년 현재로 제주도 속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개괄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제주도 속담의 ① 형성배경, ② 형태, ③ 주제, ④ 표현, ⑤ 특징, 등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핵심적인 요체만을 집약함으로써 제주도 속담에 대한 정체와 그 골격을 파악해 볼 수 있게 엮어져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속담의 교육적 기능 - <제주문화연구> 김영돈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pp. 135~153. -

이 논문은 속담이 실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생활훈인 점을 고려해서 그들 속담들이 갖는 일깨움의 교훈성을 교육적 기능에 접합시키고 있다.

그 교육적인 기능은 전인적인 인간상을 지향하기 위한 지덕체(知德體)를 중히 여기는 내용으로 된 제주도 속담 180편을 대상으로 추출해낸 것이다. 그 결과는 '숭문권학(崇文勸學)'과 '자립도생(自立圖生)'을 일깨우는 지육의 기능, '계세정인(戒世懲人)'과 '순응극복(順應克服)'을 일깨우는 덕육의 기능, '체력중시(體力重視)'와 '체질조장(體質助長)'을 일깨우는 체육의 기능 등, 건실한 삶을 조장하여 부추기는 기능

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돼 있다.

▣ 김영돈 ; 제주민의 삶과 문화 -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pp. 106~107, 160~ 168. -

이 저서는 저자의 말대로 제주도의 문화 중 제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민요·해녀·돌하르방'에 대한 식견을 밝힌 제주문화의 산책에 해당하는 교양서이다. 여기서 제주도의 속담의 일면을 소개하고 '해녀사회의 유다른 속담'이란 항목에서 ① 해녀의 위상을 드러내는 속담 ② 해녀의 분만에 관련된 속담 ③ 해녀어장과 속담 ④ 해녀의 물질에 따른 속담 ⑤ 해녀의 노젓기와 속담 등으로 구분해서 잠수들의 물질과 관련된 제주도 속담들을 언급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의 민속 III》 - 제주도, 1995. pp. 383~497. -

이 책에 수록된 〈속담편〉은 제주도의 속담 중 생업속담을 총괄하기 위해, 앞에 제시된 '생업속담연구'-《논문집》 제19집, 제주교대 1989-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주도 속담에서 추출된 주제들을 성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의 골격은 자연적 측면과 생업적 측면에서 본 ① '형성배경'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그들 속담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을 생업별로 분류해서 ② '생업속담의 소재'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생업별 속담들이 각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③ '생업속담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생업의 직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④ '생업속담의 직능'을 통해 살핀 다음, 제주도 속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제들을 분류해서 열거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 속담의 성향 - 《성주》 제5호, 고씨종문회총본부, 1995. pp. 235~248. -

이 논문은 제주도의 속담의 성향 중 골계성과 여성의 자존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 제주속담에서 돋보이는 특성에 대해 논급한 것이다.

골계성을 보면,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 예리하게 상대를 비꼬는 '풍자', 역설을 통해 심리를 자극하는 '아이러니', 기발한 착상으로 희열감을 불러 일으키는 '위트' 등을 꺼리낌없이 드러냄으로써 쾌미백출의 묘미가 발휘된다. 여성의 자존성의 문제는 육지부의 속담이 남존여비의 봉건사상에 의한 여성비하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제주도의 속담에는 여자비하에 못지 않게 오히려 남자를 능가하는 '근검·강인·존귀'함의 표상으로서 그 위상이 돋보이는 것도 꽤 많다는 것이다.

▣ 고재환 ; 제주도속담과 민요요사의 상관성 - <민요론집> 제4호, 도서출판 민속원, 1995. pp. 9~35. -

이 논문은 제주도의 속담 1000여 편을 제주도 민요의 노랫말인 謠詞에 대비시킨 결과 110여 편의 속담이 서로 넘나들고 있는 현상을 형태적인 측면과 내용 적인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상호 교류되는 현상은 그 언술의 내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① 동일형 ② 유사형 ③ 변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의 기반이 ① 인정 ② 생계 ③ 사리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구비전승물 중 가장 밀접하게 밀착돼서 넘나들고 있는 것은 속담과 민요의 가사인 요사라는 데서 그 상관성이 깊다는 것이다.

▣ 고재환 ; 제주도의 속담과 금기담 -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 816~864. -

이 논문은 제주도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제주도 전통문화의 요체를 정리하여 집약함으로써 향토문화 교육자료로 활용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다. 교육자료집인 만큼 속담과 금기담의 속성에 대한 총론으로 일반적인 속성을 밝히고 제주도의 속담과 금기담에 대한 각론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내용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속담부분은 ① 속담의 속성과 요소 ② 속담형성의 외적·내적인 배경 ③ 속담의 종류 ④ 속담의 기능 ⑤ 속담의 주제 ⑥ 속담의 가치 등을 논급했고, 금기담 부분은 ① 금기담의 형성배경 ② 금기담의 유형 ③ 금기담의 내용 ④ 금기담의 허실 등에 대한 논급이 주요골격을 이루고 있다.

▣ 고재환 ; 우도의 구비전승 - <우도지>, 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pp. 549~ 572. -

이 논문은 북제주군 연평면(속칭: 소섬·우도)의 설촌역사와 문화에서부터 현재까

지의 우도(牛島)의 인문·사회·환경·산업·행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실상을 조사해서 집성해 놓은 것 중 '구비전승' 부분의 속담과 속신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돋보이는 것으로는 전국적으로도 몇 편이 안 되는 염소에 대한 속담이 전승되고 있고, 잠수들의 물질과 관련된 돌고래에 관한 속담의 전래는 제주도에서도 우도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속신담인 경우는 금기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로 길흉과 예장(조)에 관한 것인데, 특히 예장(조)담인 경우는 바다와 관계된 것이 주류를 이루므로써 우도의 생업과 풍토성이 드러나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속담에 보전된 고어 - <성균어문연구> 제31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6. pp. 231~237. -

이 논문은 제주도의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는 15세기 중세국어를 비롯해서 그 고어들이 현대어로 변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형들을 명사류와 동사류로 구분해서 그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서 살핀 것이다. 이를테면 중세국어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이미 없어진 '·'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돌[月]·물[馬]', '하다[爲]·들다[甘]'과 같은 어휘들과 훈민정음 28자 가운데는 없지만, 훈민정음 합자해에 언급되고 있는 'ㅣ'와 '·'의 접소리 !에 해당하는 'ㄴ'가 쓰여진 '으섯[六]·으름[夏實]', '을다[結實]' 등을 비롯해서 16·7세기를 거쳐 현대국어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어들이 상당수가 보전되고 있음을 실제 속담을 예로 들어 지적함으로써, 제주도 속담의 어휘가 갖는 국어학적 가치와 의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김영돈 ; 민요와 속담의 교류 - <민요론집> 제5호, 도서출판 민속원, 1997. pp. 89~128. -

이 논문은 민요를 전공하면서 관심을 갖고 1960년대부터 고찰해 온 결과를 결산하여 매듭을 지은 것이다.

맨처음 발표한 것은 <제주도> 통권 27호(1966)에 '속담과 민요의 교류'에서 속담들이 민요의 노래말과 뒤섞여 있는 사실을 밝혔고, 그 후 제주대학 <논문집> 제10집(1978)의 '민요와 타구비문학과의 교류'에서도 제주도의 속담과 민요의 가사가 상호교류되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힌 바 있다. 그것을 다시 중

합하고 그 간에 보충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정리 종합적으로 보완한 다음, 속담과 교류되는 실상을 민요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집계를 냄으로써 제주도 민요의 노랫말과 속담의 교류상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 고재환 ; 제주도민의 기층의식과 의식주문화 〈속담을 중심으로〉 - <제주도의 전통문화 산책>, 제주교육박물관, 1997. pp. 7~20. -

이 논문은 제목 그대로 제주도 속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제주도민의 기층의식과 의식주문화를 추출해 본 것이다. 속담의 형성이 생활환경인 자연적인 여건과 인위적인 여건에 대응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성과 맞물려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생활철학이 제주도민의 의식구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관,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 등의 처신에 대한 계세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운명관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된 생활신조가 기층의식의 축을 이루고 있다. 바로 그런 기층의식이 바탕이 돼서 제주도의 풍토성에 알맞은 실용적이고 견고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기교의 투박한 의식주문화의 실상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다.

▣ 고재환 ; 제주도속담에서 본 바다의 구실 - <제주도> 통권 102호, 제주도, 1998. pp. 69~77. -

이 글은 수필형태의 소론으로서 제주도의 속담 가운데 고기잡이와 관계된 어로속담, 잠수의 물질과 관계된 잠수속담, 날씨와 관계된 기상속담을 통해서 나타난 바다의 구실을 논급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바다를 '생계무대'와 '관측예보'의 대상으로 삼고 제주도민의 삶의 매체이자 터전으로 긴요하게 활용됐다는 점이다. 생계무대로서 바다의 구실은 어업·잠수업·해운업을 형성시키고 조장함으로써 생계해결을 위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활로를 다지는 텃밭이 된다. 또한 관측예보로서 바다의 구실은 기상과 풍향을 예척케 함으로써 기후의 변화에 의한 재난을 예감하고 대비케 하는 삶의 방식을 창출해냈던 것이다. 그것은 곧 바다를 농토 이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슬기와 용단에 의한 선인들의 역동적 개척정신이 강했던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이 바다를 자원

화하고 바다의 섭리를 헤아릴 줄 아는 선인들의 생태는 21세기 해양을 개척하는 원동력으로 되살릴 때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어 풍요를 다질 수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Ⅱ. 자료 집

▣ 석주명 ; 《제주도방언집》 - 서울신문출판부, 1947. pp. 139~188. -

이 자료집은 저자가 일제시대인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동경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서귀포 토평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집했던 것을 광복후 1947년말에 발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도의 방언인 제주어의 어휘들을 열거하고 설명과 참고사항들을 수록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22편의 제주도 속담이 켜 있다.

▣ 김사엽 ; 《속담론》 - 대건출판사, 1953. pp. 142~150. -

이 책은 앞에 제시된 '논저' 부분에서 소개했듯이, 원래 자료집이 아니라 속담학에 대한 이론서이다. 그렇지만 남해안 다도해의 속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수집된 103여 편을 실고 있다.

▣ 고정옥 ; 《조선속담집》 - 학우서방(일본 東京都), 1955. -

이 자료집은 속담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설을 붙인 속담사전인데, '례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평안도, 경상도 및 제주도 등 몇 개의 지역의 특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들에 한해서는 그 지역의 방언을 그대로 보존했으며---." 그것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담이 수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나, 실제로 살펴본 결과 어느 것이 제주도 속담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 진성기 ; 《제주도속담》 - 프린트판, 1958. -

이 자료집은 한글학자 최현배의 머리말을 시작으로 400여편의 제주도 속담을 모아 엮은 것으로, 제주도에서 맨처음 만들어진 자료집이다. 문제는 속담과 구별돼야 할 금기담을 속담으로 취급했고, 또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것이면 다 수록해 놓고 있어, 그냥 제주도 고유의 속담집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 진성기 ; 《남국의 속담》 - 동양산업사, 1958. -

이 자료집은 앞에 제시한 프린트판의 속담을 활자판으로 바꾸면서 누락된 자료를 더 수합하여 1340여편을 수록해 놓은 것이다. 이 자료집은 살아져가는 구비전승의 유산들을 한데 모아 엮어낸 노고는 높이 사지만, 속담이 아닌 것을 속담으로 처리한 점과 순수속담과 다른 부류의 민속어로 선별해서 엮어져야 할 금기담류를 혼합하여 수록함으로써 속담과 금기담을 동일시해 버린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이기문 ; 《속담사전》 - 민중서관, 1977. -

이 속담사전은 기존의 자료집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으로 초판은 1962년에 발행된 바 있다. 특히 제주도의 속담을 명시해서 다룬 것은 8·15 광복 이후 출간된 것 중에 유일본인데, 1986년에 '일조각'에서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게재된 속담은 진성기의 《제주도속담》과 《남국의 속담》에서 발췌해서 그 일부를 수록하고 [참고]란을 두어 제주방언으로도 표기해서 소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과 ;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pp. 114~121.-

이 보고서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를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 가운데 속담분야에 대한 채집 결과 나타난 156편을 수록한 것이다. 그들 속담들은 꼭 이 마을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적으로 두루 쓰이는 것일지라도 채록할 수 있는 것이면 그대로 모아서 엮어 놓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제주도에서 학술조사보고서에 속담이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 제주도농촌진흥원 ; <제주농사방언·속담집> - 1991. pp. 35~68. -

이 자료집은 제주도의 농촌에서 전해지고 있는 제주방언과 농업에 관계된 농사속담 126편을 모아 엮은 것이다. 다른 자료집보다 다른 점은 그 속담들에 대해 간단한 해설을 붙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어로 번역해 놓고 있다.

▣ 북제주군애월읍고성리 ; <고성리지>- 1993. pp. 260~280. -

이 마을지에는 그 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속담들 116편을 수집해 엮어놓고 있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속담들을 그저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분류해서 그들 속담 하나하나에 해설을 붙임으로써 그 속담의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 강영봉 ; <제주의 언어·1> - 도서출판제주문화, 1994. pp. 179~241. -

이 저서는 제주도의 방언인 제주어의 어휘들의 용례를 '제민일보'에 연재했던 수필형태의 컬럼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그 부록에 보면, 제주도에 통용되고 있는 속담 199편을 해설 없이 실고 표준어로 표기를 병기해 놓고 있다.

▣ 장덕순 ;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한국문화인류학회, 1974. pp. 439~442. -

이 보고서는 제주도에 전해지고 있는 구비전승 중 수수께끼 134편과 속담 99편을 채록해서 수록한 한 것인데, 되도록 제주어 표기법에 맞게 옮기려고 고심하면서 해당 속담에 대해 간단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전국규모의 학술조사에서 제주도의 속담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 김영돈 ; <제주의 해녀> - 제주도, 1994. pp. 268~300. -

이 저서는 저자가 제주도 민요연구 외에 제주도의 해녀인 잠수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총집성시킨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민요의 노랫말인 요사와 속담이 밀접하게 교류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잠수들에 의해서 불려진 해녀 노래의 요사(謠詞)에서 속담으로 사용되고 있는 44편을 모아 그들의 교류양상을

제시하면서 상세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

▣ 고재환 : 《제주도속담사전》 - 제주도, 1999. -

이 사전은 저자가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제주도에 전해지고 있는 1640여 편의 속담을 채록한 것 가운데서 제주도의 속담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선별해서 엮은 제주도 속담사전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제주도의 속담자료는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제주도에 구전되고 있는 것이면 속담일 수 없는 것까지 통틀어 수록해 놓거나, 몇 백편 정도를 개인 저서에 부록으로 첨부한 것이 고작이다. 부분적으로는 해설이나 형성배경을 알 수 있도록 저서 중에 수록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수십 편에 불과할 뿐, 제주도의 속담을 총괄해서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집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속담사전은 그간 채록된 1640여 편 가운데서 제주도 속담으로 선별된 1200여 편에 대해 표준어 번역과 해설을 붙이고 용처를 밝힌 다음 유사한 속담이 있거나 민요의 노랫말인 요사(謠詞)와 관계가 있는 것을 제시해서 속담과 민요와의 상호 교류상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록으로 제주도에 통용되고 있지만 선별과정에서 제주도의 속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430여 편은 '선외속담'으로 해설 없이 실었고, '제주도속담연구사', '제주어표기법', '색인'을 실고 있다.

▣ 기 타

이상에서 소개한 자료집 외에 행정구역별로 발간된 읍·면지와 마을 단위의 이지(里誌) 등에 수십 편씩 산발적으로 수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로 인해서 제주어표기법에 어긋나거나 속담일 수 없는 것들도 속담으로 취급함으로써 속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별안이 절실히 요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IV. 요약·정리

위에서 열거한 제주도 속담에 대한 학문적인 조사연구의 발자취를 1945년 8·

15 광복 이후 1999년말 현재로 이뤄진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26개의 논저와 10여 개의 자료집으로 압축된다.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저 분야에서는 일제시대 제주도 답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주도 속담이 지니고 있는 속성의 일면을 단편적으로나 수록해 놓은 김사엽의 《속담론》 - 대전출판사, 1953. pp. 141~151.- 은 제주도 속담에 관한 최초의 논급이다. 그 후 1959에 이르러 현용준의 제주상업고등학교의 교지인 《향림》 창간호에 실린 '제주도 속담의 특성'이 제주도 출신으로서 처음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1966년 김영돈의 '속담과 민요의 교류' - 《제주도》 통권27호-를 시작으로 해서, 1978년 '민요와 타구비문학과와의 교류' - 《논문집》 제10집, 제주대학-, 1997년 '민요와 속담의 교류' - 《민요론집》 제5호-를 3회 걸쳐 민요와의 연관성을 거듭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전부이다.

제주도속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논저부분과 자료집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로 접어들어 고재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의 속담연구를 통해 문학석·박사학위논문이 작성되는 등 제주도 속담의 속성과 골격을 총괄할 수 있는 저서 《제주도속담연구》- 집문당, 1993.- 를 비롯한 20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제주도 속담의 실상을 밝혀냄으로써, 제주도 속담의 골격과 정체성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 속담의 자료집 분야에서는 1958년 표기와 선별상의 문제는 있지만, 진성기의 《제주도속담》과 《남국의 속담》의 발간은 제주도 속담집의 효시를 이룬다. 그 후 꼽을 만한 자료집으로는 1974년 학술조사에 의해 채록된 99편을 게재한 장덕순의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한국문화인류학회 - '제주도편'과 1982년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속담조사반이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서 채록된 156편을 수록한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을 꼽을 수 있다. 또한 1993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지》에 116편의 속담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해설해 놓은 것이 있고, 1994년 제주도의 민요인 잠수노랫말과 연관된 잠수속담 44편을 상세히 해설해서 수록한 김영돈의 《제주의 해녀》 - 제주도청 - 와 강영봉의 제주어 어휘해설서인《제주의 언어·1》의 부록에 해설 없이 실고 있는 199편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사전류로는 현재 유일하게 1999년 고재환에 의해 채록·선별된 제주도 속담 1200여 편과 선외의 것 430여 편을 한데 모아 엮은 《제주도속담사전》 - 제주도청- 이 그

전부이다.

이렇듯 현재 드러나고 있는 바로는 제주도속담에 대한 연구층은 몹시 얇아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연구의 명맥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집의 발간만 해도 그렇다. 오늘의 제주도를 있게 한 선인들의 기층의식과 생활상이 담긴 귀중한 생활훈(生活訓)이자 민속어인 언어유산을 후세에 올바르게 전수하기 위해 그 수집된 속담들에 대한 올바른 표기의 기록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올바른 표기를 등한시함으로써 제주어의 원형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켜 버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결국 속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제주어의 올바른 연구와 보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결코 소홀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